

비교문학의 과제와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

이 창 남
(한양대학교)

1. 경계의 아포리: 처용과 이방인

처용의 설화에 관해서는 세 가지 주요한 가설이 있다. 하나는 처용이 지방 호족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슬람 상인이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왕이 지방에 나가서 얻은 서자라는 것이다.¹⁾ 처용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주로 '처용이 누구인가'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문학적 해석은 '오쟁이진 남자'의 이야기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용 모티프는 지식인 문제, 욕망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현대문학에서 다양한 변주를 이루고 있다.²⁾ 특히 주제적으로 그것은 토착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와 문턱에서 나타나는 아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문학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현재적으로 숙고할 여지가 있다.

처용 자신도 이방인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턱을 넘어 자신의 처와 동침하는 역신에 대한 처용의 대응은 이방인에 대한 혹은 자기 것을 점유하는 낯선 것에 대한 독특한 대응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이 논문은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5).

1) 이에 대해서는 김기홍 (2001), pp.123-147.

2) 광근 (1999), pp.355-374.

설화 자체는 디테일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흔히 문지방을 넘어온 타자에 대한 처용의 대응은 물론 근래에 화두가 되는 '환대'는 아니다. 하지만 그의 대응은 모든 문지방에서 나타나는 자기 것과 낯선 것 사이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적대감과 관용 등에 대해서 상당히 복합적인 심리적, 정신적 디테일을 배후에 깔고 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역신과 주인의 자리가 바뀌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강탈로서의 전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치는 처용설화에서 성적인 장면으로 주체화되어 있지만, 낯선 것의 틈입과 관련된 다양한 사태들 속에서 반복된다. 요컨대 사물과 메타포(언어), 사회와 제도 사이에서도 일종의 전치가 나타난다. 언어도 제도도 낯선 것의 틈입과 더불어 자리잡는다. 그리고 낯선 것은 익숙한 것으로 다시금 전치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치된 결과를 본질화하면서 거꾸로 낯설었던 것이 어느 순간 익숙한 것이 된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 익숙한 것이 문득 낯설어지는 흥미로운 사태 속에 프로이트가 '내밀하고 친숙한 것 *das Heimliche*'과 '두렵고 낯선 것 *das Unheimliche*'의 동근원성에 대해 논한 것과 같은 변증법적 전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 내 것과 네 것 사이의 정치, 사회, 문화적 문지방은 주지하다시피 늘 평화적 이성이 작동하는 경계는 아니다. 이 경계를 둘러싸고 상당히 복합적인 무의식이 작동하며, 그 결과를 본질화 하는 과정에서 착시와 집착이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착시와 집착을 통해서 데리다의 표현을 빌리면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인질'이 되기도 한다. 역신의 침입에 대한 처용의 대응이 경외로운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선 '자기 것'에 대한 정신적 자유에 기인할 것이다. 좀 더 추론하자면 처용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역신에게서 바로 낯선 자신을 보았을 수도 있다. 그것은 문득 친숙하고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는 두려움의 경험이다. 이 경험에 대한 처용의 대응은 환대도 적대도 아니다. 다만 그가 그러한 자기 전치의 상황과 유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인과 이방인, 자아와 타자의 자리바꿈이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소위 세계, 민족 등의 범주들도 그러한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주인과 이방인의 경계의 역학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 '민족', '비교'라는 용어들이 '문학'

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에 대한 논의들도 경계를 둘러싼 자신과 낯선 자신으로서의 타자 사이에 나타나는 경계의 역학 또는 그 분리와 통합의 매커니즘과 더불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연구에서 노정되는 문제와 과제들을 점검하고,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을 중심으로 국민국가를 넘어 변화하는 공동체와 관련된 비교문학의 방법론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세계'에서 '비교'로

테리다는 『환대』에서 서양의 절대적 환대의 전통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근대적 환대를 비판적으로 거냥한다. 그 절대적 환대의 개념으로 볼 때 소위 18세기 코스모폴리턴적 사유 속에서 이루어져온 타자에 대한 환대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규범적 세계주의의 호혜평등의 원리가 실제적으로는 법적 정치적 조건들 속에서 상당한 정도로 왜곡되고 제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들 간의 지배와 예속으로 귀결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적 환대 속에서 세계주의 이념이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가상으로 환대의 세속적 조건들을 무조건화하기 위한 구실로 전락해온 것이 사실이다. 경계의 지대에서 칸트의 “평화적 이성”에 테리다는 타자성의 방해로 평온함에 머물지 못하는 주체의 본원적 두려움 *hantise*를 대립³⁾시키는 것이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유럽 계몽주의의 환대의 원칙, 관용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은 18세기말과 19세기초 다양한 문학적 변주를 얻고 있다. 독일에서 레싱의 『현자 나탄』은 종교적 차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적대를 계몽적 이념으로 화해시키고자 한 예이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근래에 새로이 회자되는 괴테의 “세계문학”의 이념도 자리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1827년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괴테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에는 국민문학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이

3) 테리다 (1997), p.11.

제 세계문학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지.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런 시대의 도래 촉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네.”⁴⁾

피테의 이러한 언급은 그 이전부터 전개되어오던 코스모폴리턴적 세계주의의 확장적 변용으로 읽힌다. 골드 스미스는 1762년 출간된 저서 「세계의 시민」에서 이를 어떤 국가가 아니라 세계 속에 정체성을 찾는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볼테르는 “오늘날 더 이상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스페인 사람 그리고 영국 사람도 없다. 단지 유럽 사람만 있다. 이들 모두는 같은 미각, 같은 감정, 같은 관습을 갖는다”⁵⁾고 말한다. 이들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세계를 유럽과 동일시한다면, 피테는 중국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세계주의의 이념을 문학과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계몽적 코스모폴리턴들의 세계주의와 피테의 세계문학론은 나와 타자들이 인간으로서 동일하다는 데에 우선 기초하고 있다.⁶⁾ 동시에 나와 타자들 그리고 그들의 문학적 생산물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유사성은 공동체의 기초이다. 이러한 동일성의 논리가 없다면 '세계'라는 하나의 이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세계는 다양하기도 하다. 말하자면 동일성의 논리와 함께 차이성의 논리도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동일성과 차이성 사이에는 매개되지 않는 심연이 존재한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유럽의 코스모폴리턴적 사유는 “관용”으로 그 거리를 매개하고자 했다.

동시에 이러한 보편적 세계주의 속에 미결정 지대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미결정 지대를 규범으로 채우고 있기도 하다. 피테의 세계문학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만 할” 당위로서 규범성을 띠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용도 유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⁷⁾

이러한 방식으로 문학에 붙은 '세계'라는 수식어는 지구적 수준의 문학으

4) 에커만 (2007), p.233.

5) Delanty (2000), p.54.

6) 에커만 (2007), p.231.

7) 신, 인간, 세계는 칸트적 용법으로 말하자면 이념들이며, 그에 대한 규정은 규범적인 양상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를 시간을 매개로 목적론적으로 미래에 투사하는 경우 규범적 과제 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로 규범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 비관이 되고 있듯이 서구 제국의 일부 문학들이 소위 '수준'을 의미하는 세계문학으로 모범화 되고, 인문학의 학과 체제들도 그러한 제국적 국민국가의 틀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대문학이 전문작가들의 산물인 한, 개별국가들의 근대화 정도는 문학의 기술적 사상적 수준을 규정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범으로서의 세계문학론의 한계는 조건적 환대 속에 보편성을 논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전통의 한계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선 세계라는 이념이 지닌 방대한 미결정 지대를 현실적 '조건'들 속에 방치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둘째로는 그 미결정 지대를 규범화하면서 오히려 현실의 힘의 논리에 순응적으로 접목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세번째로는 문학진화의 일정한 발전경로를 근대화의 척도와 더불어 미리 규정하고 다른 것을 거기에 맞추도록 하기 때문이다.

결국 코스모폴리탄의 "세계"는 힘의 투사체가 된다. 국문학, 독문학, 불문학, 중문학, 영문학 등 민족문학과 제국들의 문학이 학과 편제의 기본틀을 이루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나마 이러한 학과 편제도 이제는 현실적 힘의 논리에 따라 상당히 불균형해지고 비대칭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복수의 '제국들이' '제국'으로 단수화되면서 세계에 대한 비전도 점점 일원화되는 것이다. 18-19세기 코스모폴리탄들이 꿈꾼 하나의 '세계'는 상당히 왜곡된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참조지점으로 삼는 국내외 세계문학론들은 계몽적 코스모폴리탄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⁹⁾ 오히려 그러한 '세계'에 역행하는 비교문학의 연구 방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비교문학도 그 태생으로 보면 세계문학과 동근원적이다. 19세기 초 유럽에서 개별 국민국가들이 형성되고, 일부 국가들이 제국화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비교문학도 제도적으로 정착해가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탈식민주의 비평 등을 거쳐 그에 대한 반

8) 칸트의 코스모폴리탄 주의의 한계에 대해서는 Derrida (2004), pp.21-22 참조.

9) 국내에서 개진되는 세계문학론들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유희석 (편), 『세계문학론 - 지구화시대 문학의 쟁점들』, 창비 2009).

성이 전반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새로운 의미의 비교문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코스모폴리턴 주의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동일한 교환체계, 동일한 제도적 위계, 동일한 문화적 양상의 '익숙함'을 '낯선 것'으로 전치시키는 전복적 상상력을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할 것이다. '세계'에서 '비교'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탈중심화 된 비교문학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III. 탈중심화와 비교문학의 난제들

근래에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비교문학은 오늘날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영에 따르면 "비교문학이라는 말이 대중화되고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한 프랑스가 비교문학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중심이었다."¹¹⁾ 이제 어떤 "중심이 없는 비교"를 생각해야할 때인 듯하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비교문학의 제도적 기반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중심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이동한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많은 유럽 문학이론가들의 '망명'이지만, 이들을 적극 수용한 긍정적 결산은 1950년대 초 미국에서 이루어진 국제비교문학회 ICLA에서 잘 나타나는 듯하다. 여기서 상당히 긴 비교문학의 역사를 일별할 수 없지만,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국비교문학회 ACLA의 보고서는 비교문학의 주제적 방향과 교육 등에 관한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련연방의 해체, 아프리카 민주주의 선거의 시작 등 일련의 전환적 국면과 더불어 90년대 이후 비교문학에 관한 국제적

10) 피테가 세계문학을 논하던 무렵 빌맹 (Abel Francois Villemain)은 프랑스에서 비교문학 애호가들 (amateurs de la litterature)을 장려하는 *Tablau de la litterature en France, en Italie, en Espagne et en Angleteree* (1830)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다. (Guillen (1993), p.24 참조).

11) Guillen (1993), p.47.

논의는 사실상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것은 학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쳐온 냉전구도의 해체와 탈식민주의의 대두로 인한 소위 중심의 해체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중심 없는 비교의 아포리도 동시에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미국의 비교문학 연구와 교육의 동향에 관한 베른하이머의 ACLA 보고서와 그에 대한 논평을 담은 책¹²⁾의 서문에는 그러한 '비교'의 아포리와 두려움이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보편을 말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니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¹³⁾ 비교가 수행될 수 있는 보편적 지평이 부재할 때, 비교하는 주체의 심급, 비교 대상의 선택 등 비교문학 연구는 상당한 방법론적 난제들을 노정한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규범적 저자가 있고, 문학학과들 사이의 영향 관계를 오늘날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유럽의 테두리에서 비교문학 연구를 수행할 때는 문제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문학의 규범적 전통을 재고하고, 소수민족을 포함하여 전지구적 문학의 범주를 새로 숙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교문학 연구도 역시 새로운 척도와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세계 문학이라는 규범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교문학 연구는 각자의 문학으로 '분리'되고, 다시 '결합'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 규범의 자리에 문화학과 사회과학 등과 결합하라는 요청이 들어서고 있다. 이는 비교문학의 학제적 정립과 관련하여 두 번째 난제로 이어진다. 같은 책에서 프랫은 '동물농장 주인은 축사의 문을 열어둔 채 떠나버리고, 동물들이 잡종교배해서 혼종을 배태하며, 농장의 주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황'¹⁴⁾으로 세기말 비교문학의 정황을 포착하고 있다. 글로벌화, 민주화, 탈식민주화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을 겪으면서 50년대 이후 지배적이던 문학의 고유한 규범성은 해체되고,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들과 결합하면서 학제적 경계는 희석되는 것이다.

즉 문헌학의 전통이 문화, 지역학 등의 영역들과 교차하면서 사실상 문학

12) Bernheimer(Ed.), *Contemporary Literature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13) Bernheimer (1995), p.9.

14) Pratt (1995), p.58.

이 사회와 역사의 1차 자료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문학의 독자적 영역은 사라지고,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매개적 대상이 된다. 문학텍스트는 상상적 즐거움을 주는 사회와 문화의 (다소 신빙성은 떨어지는) 자료로 비교문학 연구의 학제적 테두리는 어느 순간 소멸하게 되는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다.

베른하이머가 지적하듯이 문학은 지식을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사실상 "사적인, 책임지지 않는, 쾌락주의적인 private, irresponsible, hedonistic"¹⁵⁾ 등의 술어로 문학은 소위 사회적 연대와 분리되곤 한다. 소위 경험의 사회과학이 요구하는 진정성과 실증성은 때로 "문학은 문화의 진정성 있는 거울인가?"¹⁶⁾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오랜 냉전 구도에 침윤된 지역학과 민족의 정체성 정치에 영향 속에 있는 문화연구는 또 다른 방향에서 비교문학과 여타 학문분과들과의 접촉을 어렵게 한다.

문학연구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금 전통 소위 '서구중심적' 미학의 경계로 회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학이라는 독특성 때문에 사회과학들과의 결합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역학과 문화학의 정체성 정치는 '비교'를 자아와 타자를 가르는 오래된 척도 즉 영토, 언어, 혈통의 문지방에서 좌절하게 한다. "많은 문학을 비교하려할 수록, 당신은 더더욱 식민화하는 제국주의자로 보일 것이다."¹⁷⁾는 베른하이머의 아이러니컬한 언급은 탈식민주의의 다른 한편에서 단힌 문이 되는 정체성의 정치의 문제를 적절히 시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앞의 여러 문제들과 연결되면서도 결정적인 것으로 남는 문제는 언어이다. 소위 경제적인 이유로 다양한 언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지역과 언어에 정통한 다중언어 교육도 1, 2 개 외국어 이상을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미국의 비교문화학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비유럽언어 at least one non-European language"¹⁸⁾ 습득을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배담론에 편중되지 않는 탈식민적

15) Bernheimer (1995), p.16.

16) Bernheimer (1995), p.8.

17) Bernheimer (1995), p.9.

18) Bernheimer (1995), p.43.

의미의 진정한 비교문학의 과제를 수행하기에 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번역'을 매개로 하지 않고는 소위 제 3세계 문학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링구아 프랑카 lingua franca'로 기능하는 영어에 의존하는 것은 문헌학으로서 문학 전통 자체에도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비교문학의 지향성에도 배치된다. 소수 비교문학 연구자를 제외하면 미국의 단일 언어주의는 미국인들 자신들에 의해 '타자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뿌리 깊다. 아울러 비영어권에서 제 3세계 문학에 접근하거나 심지어 유럽 문학에 접근할 때에도 영어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불가피하게 영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위 제 3세계 비교문학 연구자들에게 비교문학의 문헌학적 전통을 고수하면서 여러 민족과 국민문학에 접근하는 일은 몇 단계 프리즘을 거쳐야만 하는 면 이상이다. 탈식민화를 추동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심각한 언어적 제약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스스로 대립하고자 하는 제국의 언어에 의탁하는 역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체제론을 모델로 다양한 국민문학의 문학적 진화를 소위 "멀리읽기"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프랑코 모레티의 비교문학론은 이러한 탈중심화가 만드는 비교의 난점들과 언어, 사회, 문화적 제약들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미 에릭, 스피박 등 여러 논자들이 비판하고 있듯이, 여기서는 전체 체계서술을 위해 현장의 민족문학자들이 정보제공자가 되는 것은 적실하지 않은 위계적 구조와 낡은 이론중심의 사유를 반복한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또 그가 괴테와 마르크스의 코스모폴리턴적 전통의 유럽적 경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함에도 다소 확장된 의미에서 그러한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야심으로 회귀하고자 할 때, 문지방들에서의 오랜 좌절들을 상기하면 그의 구상과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다. 폴 드 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 신, 인간의 이념은 끊임없는 비유오용에 빠져들게 하는 미결정 지대로서 심연이다. 그 심연을 가로지르는 일은 사물과 사태에 강탈적 비유를 덧씌우거나, 불충족한 개념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바로 “세계” 없는 “비교”는 아포리이며, 비교문학 역시 학문 정체성의 문

제, 학제 간 관계의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문학 연구의 기획은 일종의 실험적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의 두려움”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러한 난제들을 수행적으로 푸는 것이다. 새로운 비교문학은 소위 이방인의 좌절과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미봉책'들을 통해서 보다는, 주인과 이방인의 자리를 전치시키는 좀 더 과감한 실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비교문학은 통합적인 세계의 전체성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미지의 심연에 대응하고 그와 유희하는 실험적 훈련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외국어들을 아는 학생들을 배출하기 보다는 아마도 이중언어적, 이중문화적 (혹은 다중언어적, 다중문화적 국민)을 배출하는 것에 관해 말하기 시작해야만 할 듯하다.”¹⁹⁾는 프랫의 언급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말하자면 타자성을 포함하는 자아처럼 낯선 것을 포함하는 자기 것을 탈정립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일종의 퍼스펙티브로서의 ‘비교’를 체화하는 일이다. 이는 비단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적 비전 등을 내재화하는 비교문학 연구와 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절대적 환대의 실험²⁰⁾이기도 하며, 그러한 실험에서 문학은 여타 학문분야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현실에서라면 이상하게 두려운 것이었어도 그런 것들이 문학에서는 대부분 두려운 것이 되지 않고 또 삶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많은 두려운 낯설음의 감정들이 문학에서는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²¹⁾

IV. 번역과 비교에서의 “다리과 문”

짐멜은 「다리과 문」(1909)이라는 글에서 공간적 경계들과 관련하여 “다

19) Pratt (1995), p.62.

20) 필자는 절대적 환대를 현실성이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것은 극단을 생각하면서 통념을 뒤집는 일종의 실험적 해체의 개념이다.

21) Freud (1999), S. 264.

리”를 ‘두 가지 유한한 자연적 대상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문”을 일종의 경계로서 그 안에 닫혀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그 양자 사이에는 전자가 유한한 하나의 선형적 연계성을 갖는 반면 후자는 무한한 접점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짐멜의 이 형상은 도시공간의 메타포이자 사회적 관계의 메타포이다.²²⁾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메타포는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대한 메타포이자 사회공동체와 관련된 메타포로 전유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상호텍스트적 문제이자 사회공동체 문제이기도 한 비교문학의 형상에 대한 메타포로 구성해볼 수 있다. 그러한 단초를 우리는 짐멜의 형상을 상호텍스트적이자 언어공동체 간의 문제로 전유하고 있는 벤야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벤야민은 「번역자의 과제」에서 원문과 번역 사이의 관계를 원과 접선 사이의 관계로 논하고 있는데, 이는 짐멜의 「다리과 문」에서 특히 ‘문’ 모티프를 텍스트적으로 전유하는 것이다.²³⁾ 요컨대 벤야민의 ‘원’과 ‘접선’ 모델은 유한한 두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보다는 접점과 동시에 무한한 다른 접점의 가능성을 가진 ‘문’에 더욱 상응한다. 이는 번역과 비교문학의 차원에서 고려하자면 언어공동체들 사이의 경계이자 접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벤야민은 이 분리와 연결의 형상을 통해서 흥미롭게도 자기를 타자화하는 ‘번역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가 판비츠의 말을 빌어 요청하듯이 번역자의 과제는 외국어를 자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를 낯설게 하는 데에 있다.²⁴⁾ 또 같은 글에서 높이 평가하는 그리스 문학에 대한 쉘덜린의 직역은

22) 프리스비에 따르면 “도시는 짐멜에게 사회학적 중요성을 가진 공간적 실체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형성된 사회학적 실체이다”(Frisby (2000), p.11).

23) 물론 이를 그 내용적 측면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두 저자의 상호텍스트적 관계에서 입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벤야민의 도시공간 연구에 대한 짐멜의 영향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입증되었고, 「번역자의 과제」라는 글에서도 도시공간에 대한 메타포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령 “문장이 이를테면 원문의 언어 앞에서 서 있는 벽이라면 말 하나하나의 아케이드이기 때문이다”(벤야민 (1999), p.330)는 대목을 들 수 있다. 「번역자의 과제」에서 이미 짐멜의 도시공간과 사회관계에 대한 사유는 벤야민에게서 텍스트적 관계의 메타포로 전유되고 있다.

24) “우리의 번역은, 비록 그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전체에서

그리스어를 독일어화하지 않는 방식의 번역의 사례로 거론되는데, 이는 독일 문학 연구에서 특히 국민시인으로 양식화되어온 뢰탈린 상을 뒤집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벤야민의 번역론은 국민문학 내부에서 발달해온 일부 배타적 논리 및 신화와 충돌한다.

더 나아가서 폴 드 만은 벤야민의 이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번역을 통해 ‘생소한 모국어’의 발견하는 과정을 추론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 속에서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포근함과 친숙함을 느끼며, 그 안에서 소외되지 않는 어떤 은신처를 발견한다. 이 언어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번역이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소외가 바로 우리 자신의 언어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²⁵⁾

번역을 통해서 자기 언어의 생소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 대개 우리는 이를 초보 번역자의 미숙함으로 생각한다. 외국어를 제대로 자기화하지 못한 경우에 생소함이 번역의 실제에서 곤잘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번역자가 외국어를 자기화하여 그 안의 낯선 것에 대해 배제적 통합을 수행할 때 해소된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소위 ‘잘 읽히는 번역’으로 이해하지만, 실상 그것은 강력한 자기화의 과정을 통한 낯선 것의 배제로 인한 결과다. 따라서 모국어 가 낯설어지는 번역의 특징적 상황은 번역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언어들이 중첩되는 상호텍스트적 번역 과정에 본질적으로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벤야민은 “자기 언어의 고통 *Wehen des Eigenen*”²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번역을 통해 모국어 가 낯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보다 근원적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들 번역은 독일어를 힌두어화 그리스어·영어화 하는 대신에 힌두어, 그리스어 영어를 독일어화하고 있다. 우리의 번역가들은 외국작품의 정신 보다는 그들 자신의 언어의 사용에 대해 보다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 번역가의 기본적 오류는, 자신의 언어가 외국어를 통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의 언어가 처하고 있는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 그는 외국어의 수단을 통해 그 자신의 언어를 확대하고 심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판비츠, 『유럽문화의 위기』, 벤야민 (1999), pp.331-332에서 인용).

25) De Man (2006), p.84.

26) Benjamin (1981), p.13.

보면 드 만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자신의 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나타나는 어떤 생산적 고통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해하는 ‘익숙함’이 일종의 가상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극적인 인식의 전환을 수반한다. 그 전환은 번역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비교문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이한 언어공동체에 대한 인식에도 해당된다.²⁷⁾

상이한 언어공동체들에서 생산된 문학들의 연계성과 접점, 즉 그 ‘다리’와 ‘문’을 연구하는 비교문학은 흔히 생각되었듯이 국민문학들의 보물창이거나 세계문학을 위한 방법론적 매개물이 아니다. 방티켄이 그의 『비교문학』 서문에서 쓰고 있듯이²⁸⁾, 비교문학 연구는 전통적으로 ‘국민문학 연구의 보완’ 혹은 ‘세계문학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비교문학 연구는 개별 국민문학들을 매개하고, 세계문학이라는 이념형에 근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 속에는 비교문학이 국민문학 및 세계문학과 갖는 어떤 생산적 긴장이 가려져 있다. 이러한 긴장은 특히 앞서 논한 바 “자기 안의 타자성”이 비교문학 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체화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의미의 비교문학을 논하자면, 그것은 애초에 국민문학론 내부에 존재하는 작위적 신화들에 대한 해체를 수행한다. 더 나아가 ‘우리’라는 기존의 범주를 해체하고, 우리 밖의 타자가 우리이기도 하며,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밖에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전치의 실험이 되는 것이다. 비교는 일종의 문이 되어서 닫힌 구조를 열고, 그 문에 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또한 국민문학의 이념과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한 세계문학의 이념과 비교문학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비교문학이 국민문학의 일부 배타적 단독성의 신화에 도전한다면, 그 목적은 국민문학을 초월하는 어떤 세계문학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문학이

27) 번역 일반을 비교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모델로 고려하는 경우로는 Congold (2005), pp.139-145 참조.

28) 방티켄(1999)은 그의 『비교문학』 서문에 “이 학문의 목표는 여러 나라 국문학사와 절대로 대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국의 문학사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리라 본다. 그리고 동시에 각국의 국문학사 상호간에 더욱 보편적인 문학사의 관계를 조성하리라 본다.”고 쓰고 있다. (방티켄 (1999), p.18.)

라는 이념형 자체에 대해서도 비교문학 연구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탈식민주의의 성과들을 전유하며 비교문학이 지향하는 것은 “세계 없는 세계성 worldliness without world”²⁹⁾일 것이다.

이를 통해 그것은 세계라는 이념 하에 강요되어온 관계의 불평등과 비대칭성을 전복적으로 내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문학의 그늘 속에 복부했던 과거 비교문학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의 민족주의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지는 방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문학 및 국민문학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비교문학의 양비론적 방향성과 방법론을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로 표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근거하는 비교문학 연구의 방법론과 방향은 물론 문학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들과도 깊이 결부되어있다. 따라서 끝으로 “자기 안의 타자성”에 주목하고 “세계 없는 세계성”을 지향하는 비교문학의 인식전환을 어떤 새로 생성되는 공동체의 형상과 더불어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V.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과 새로운 공동체

상상을 토대로 하는 소설을 비롯하여 문학은 공동체의 구성적 요인이다. 사실 “국민문학”이라는 말 만큼 공동체와 상상이 긴밀하게 결합하며, 언어와 미학적 규범이 공동체의 형상과 긴밀한 상관성에 놓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는 많지 않다. 비교문학 연구에서도 어떤 새로 배태되는 공동체의 ‘형상’과 관련하여 그 방향성을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아프리카 작가에 의해 수용된 카프카의 예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에서³⁰⁾ 여러 시사점들을 도출해볼 수 있겠다.

카프카도 어느 특정한 국민문학의 전통 속에 위치시키기 어려운 작가이지만, 남아프리카의 정치사회적인 문맥에서 그의 작품들은 보다 복합적인 컨텍

29) JanMohamed (1992), pp.218-241.

30) Cooppan (2005), pp.346-369.

스트 속에 놓인다. 언어와 문화의 경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남아프리카는 1948년 이후 인종차별적 민족정부의 수립과 90년 이후 탈인종차별적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소위 “새로운” 남아프리카는 여전히 예전의 인종, 문화, 언어적 갈등을 사회내부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³¹⁾ 바벨탑의 저주가 인종차별시기의 차별의 정당화 논리로 작동했던 점을 고려하면 남아프리카의 사회는 그 저주를 푸는 번역 및 비교문학의 방향을 숙고하는 데 적합하고 흥미로운 콘텍스트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벤야민 역시 바벨 이전의 어떤 통합적 ‘순수언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는 깨진 향아리처럼 갈라진 언어들 사이에 다리와 문을 마련하는 번역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되고 있다. 물론 이 궁극지점이 ‘세계’라는 이념과 마찬가지로 실체라기보다는 심연이라는 점은 앞서 논한 바와 같다. 이 심연 속에 여전히 인종과 언어의 경계가 강고하게 남아있는 남아프리카에 카프카의 작품들은 90년대 이후 반인종차별적 전선에 서있는 작가 쿠체 Coetzee와 당고르 Dangor에게 변혁과 변신의 알레고리로 수용된다.

쿠체에게 문학은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인데, 여기서 카프카는 “이야기로 폭탄을 제조하는”³²⁾ 문학적 작업의 선례로 거론된다. 변화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문학적 테러는 인종과 문화, 언어적 경계에서 수행되면서 현존하는 경계의 역학에 저항한다. 당고르의 『카프카의 저주 Kafka's Curse』(1997)에서 묘사되는 남아프리카판 그레고어 잠자는 다인종적 선조를 가진 아랍인으로 “형상이 바뀌는 병 form altering disease”을 앓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³³⁾ 그는 궁극적으로 식물로 변해간다. 인종주의에서 탈인종주의로, 비민주적 민족주의에서 아프리카 민주주의 선거로 아프리카 사회는 가시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수행했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사회문화적 경계는 일상 자체를 어떤 경계지의 삶으로 만든다. 여기서 변신과 변용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존재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열망과 연결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존재의 뿌리들 ... 태어나려고 고투하는 어떤 것 the roots of

31) Cooppan (2005), p.348 참조.

32) Coetzee (1988), p.3.

33) Cooppan (2005), p.356.

another being ... something struggling to be born”에 다름아니다.³⁴⁾

쿠웬에 따르면 카프카로부터 쿠체와 당고르로 이어지는 "상호텍스트성이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쓰여지는 양태"³⁵⁾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전이의 결과를 다시금 “새로운”이라는 수식어와 더불어 국민문학과 국민의식으로 재영토화하고 있다.³⁶⁾ 또한 그의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단순히 중심이 국가적 패러다임에서 글로벌한 패러다임으로 전이되는 것이며, “국가 먼저 세계 나중 nation first globe after”³⁷⁾이라는 선후 관계를 뒤집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관건은 이러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공동체의 위상학적 범주의 차이만이 아니라 질적인 내용이다. 이 내용은 쿠웬이 첨예화하지 않고 있는 비교문학과 국민문학 사이의 그리고 탈식민주의 연구와 이 세계시민주의에 기반한 세계문학 사이의 생산적 긴장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따라서 단순히 국민국가에서 글로벌로의 위상학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 사이의 심연에서 경계의 역학에 도전하는 전치의 실험 속에 자리한다. 그것은 세계도 민족도 우선적 요인이 될 수 없는 새로운 상호텍스트적이자 공동체적인 생명의 지점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이 가지는 긴장의 문학외적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는 쿠웬이 예시하는 두 가지 새로운 공동체의 형상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미시적 방향의 소수자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거시적 방향의 초국적 공동체이다. 이 양자는 독립적이지 동시에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공동체의 형상으로 국민 공동체와 국민문학/ 세계공동체와 세계문학에 대한 이해 역시 그 두 가지 방향의 새로운 공동체 규범들이 탄생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카프카는 남아프리카 작가들에게 낯선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이며, 새로운 공동체에서 ‘우리’가 되어야 할 타자이다. 식물이 된 아프리카의

34) Dangor (2000), p.14.

35) Cooppan (2005), p.350.

36) 쿠웬에게서 이 개념은 따라서 세계시민주의를 전제하는 세계문학 논의와 별 차이가 없고 국민문학의 확장과 국민의식의 변화가 관건이지 국민이라는 공동체의 범주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37) Cooppan (2005), p.346.

그레고어 잠자는 어떤 미래 공동체를 위한 토템 나무가 되고 있다. 비교문학은 이 나무에 자양을 주는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 위에 그 방향성과 목적을 정립해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가야트리 C. 스피박, 『경계선 넘기』, 문화이론연구회 옮김, 서울: 인간사랑, 2008.
- 곽근, 「처용설화의 현대소설적 변용 연구」, 『국어국문학』 n. 125, 1999 pp.355-374.
- 김기홍, 「신라 처용설화의 역사적 진실」, 『歷史教育』 Vol. 80, 2001, pp.123-147
- 김영희/ 유희석 (편), 『세계문학론 - 지구화시대 문학의 쟁점』, 서울: 창비, 2010.
- 방 티겔, 『비교문학』, 김종원 옮김, 서울: 예림기획, 1999.
- 발터 벤야민, 「번역자의 과제」, 반성환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서울: 민음사, 1999, pp.319-333.
- 왕상위안, 『비교문학의 열쇠』, 문대일 옮김,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2.
- 요한 페터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곽복록 옮김, 서울: 동서문화사, 2007.
-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서울: 동문선, 1997.
- ABEL, Jonathan E., "Translation as Community: The Opacity of Modernization of Genji Monogatari," Bermann, Sandra and Wood, Michael (Ed.), *Nation, Language,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p.146-158
- BENJAMIN, Walter, "Die Aufgabe des Übersetzters" (hrsg. v. Tillman Rexroth), *Gesammelte Schriften IV.1*,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1, S.229-268.
- BERNHEIMER, Charles, "Introduction: The Anxieties of Comparison," Bernheimer, Charles (Ed.),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and London, 1995, pp.1-17.
- COETZEE, J. M., "The Novel Today," *Upstream 6(1)*, 1988, pp.2-5.
- CONGOLD, Stanley, "Comparative Literature: The Delay in Translation," Bermann,

- Sandra and Wood, Michael, *Nation, Language,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p.139-145.
- COOPPAN, Vilashini, "National Literature in Transnational Times: Writing Transition in the "New" South Africa" (Eds.) "Sandra Bermann and Michael Wood", *Nation, Language,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p.346-369.
- DANGOR, Achmat, *Kafka's Curse*, Newyork: Vintage International, 2000.
- DELANTY, Gerald, *Citizenship in a Global Age: Society, Culture and Politics*,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2000.
- DE MAN, Paul, *The Resistance to Theo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 DERRIDA, Jacques, *On Cosmopolitanism and Forgiveness*, Trans Mark Dooley and Michael Hug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 EAGLESTONE, Robert, "Levinas, Translation, and Ethics", Bermann, Sandra and Wood, Michael, *Nation, Language,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p.127-138.
- FREUD, Sigmund, "Das Unheimliche," *Gesammelte Werke - Werke aus den Jahren 1917-1920*, Frankfurt am Main: Fischer, 1999.
- FRISBY, David, "Introduction to the Texts", *Simmel on Culture* (Ed. by David Frisby and Mike Featherstone), London: Sage Publications, 2000, pp.1-28.
- GUILLEN, Claudio, *The Challenge of Comparative Literature*, Translated by Cola Franzen,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93.
- JANMOHAMED, Abdul R., "Worldliness-Without-World, Homelessness-as-Home: Toward a Definition of the Specular Border Intellectual," *Edward Said: A Critical Reader* (Ed. Michael Sprinker), Oxford, Cambridge: Basil Blackwell, 1992, pp.218-241.
- PRATT, Mary Louise, "Comparative Literature and Global Citizenship", (ed. by Charles Bernheimer,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p.58-65.
- SANDRA, Bermann MICHAEL, Wood(Ed.), *Nation, Language,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2005.
- SAYSSY, Haun (Ed.), *Comparative Literature in an Age of Globaliz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 SIMMEL, Georg, "Bridge and Door" Ed. David Frisby and Mike Featherstone, *Simmel on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2000, pp.170-174.

❖ ABSTRACT

The Tasks of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and The Literary Transnationalism

Changnam Lee

In this paper, I suggest methodological ways of studying comparative literature regarding ongoing discussions of world and national literature. The role of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has widened in the contemporary era, in which nations have become rapidly entangled and the concept of the world as a unified entity is under question. In this regard, I critically review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the hospitality of cosmopolitanism and the exclusivity of the borders of national literatures. Further, I suggest that scholars adopt the concept by Sigmund Freud of "unfamiliar familiarity" as a methodological motive for studies of comparative literature. Based on this concept, scholars can further develop the unique methods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for teaching and research amidst the ongoing phenomenon of globalization. They can also use these methods to simultaneously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 of "comparison without a unifying category of the world," as revealed by the results of deconstructional and postcolonial studies. Regarding community-based discussions of literature, I introduce the "bridge and door" metaphor, put forth by Georg Simmel, as a key concept in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of translation and in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In this paper, adopting the metaphor of the bridge and door as an intertextual and social model for comparative studies, I define the new role of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in literary transnationalism, which is particularly necessary when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overlap and become entangled. Regarding the rapidly changing contemporary world community,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as an experimental discipline, is uniquely capable of examining this kind of community, which forms itself beyond and beneath individual nations.

Key Words

비교문학, 국민문학, 세계문학, 공동체, 환대,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
comparative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world literature, community, hospitality,

264 비교문화연구 제38집 (2015. 3.)

literary transnationalism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